

[월간 고용시장 모니터]

2010년 9월 고용시장 분석

2010.10.22 | 김수현_새사연 연구원 | sida7@saesayon.org

목 차

1. 통계청의 2010년 9월 고용동향
2. 고용률 하락
3. 고용증가추세 둔화
4. 악화일로의 청년층 고용상황
5. 글을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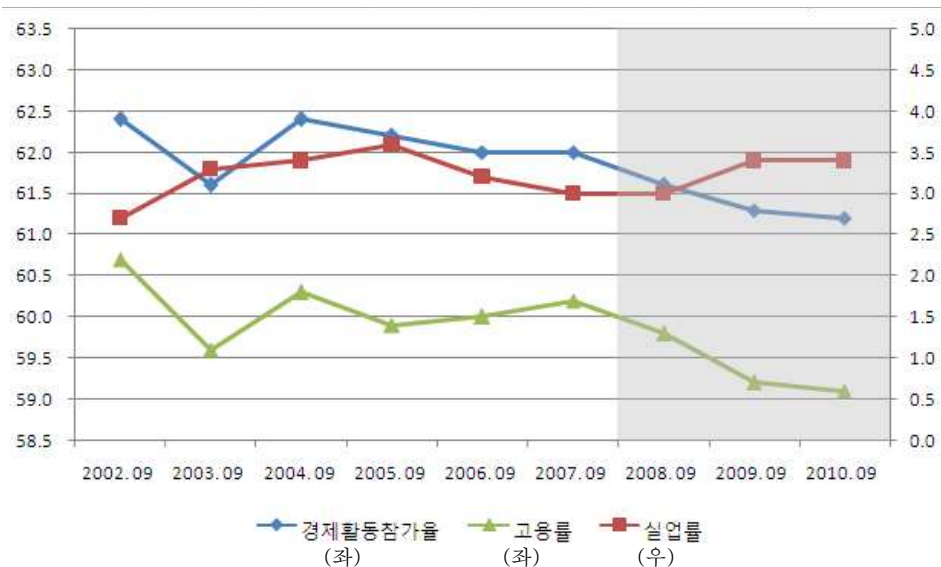
<http://saesayon.org>

요약

통계청의 2010년 9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다. 발표에 따르면,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줄어들었으나, 취업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과 마찬가지로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복지행정, 도소매·음식숙박업,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제조업, 보건및사회복지 등 다른 산업의 취업자 수가 증가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취업자 수가 24만 9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월대비 실업률은 변화가 없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다.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고용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 일자리를 가진 사람의 비중이 감소했음을 가리킨다. 기간을 확대해 2002년부터 매년 9월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금융위기 이후 계속해서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2010년 9월에 가장 낮은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이는 전반적인 고용상황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림 1]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추이



고용률 하락의 이유는 고용증가세 둔화 때문이다. 3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30만명 이상을 기록하던 취업자 수 증가가 9월 24만 9천명으로 하락하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명절효과와 잦은 비로 인한 일용직 감소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

하며 다음 달에는 다시 전년동월대비 30만명 이상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이라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 후 고용회복을 주도했던 제조업의 고용증대는 기저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환율불안으로 인한 수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쉽게 낙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지금과 같이 원화가치 강세가 계속되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 수출의 감소를 가져와 제조업에서 고용 감소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제조업과 함께 고용회복에 있어 중요한 토대였던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의 경우 일시적인, 좋지 않은 일자리라는 특성으로 인해 정부의 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계속해서 취업자 수가 줄어들 것이고 향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면 2009년 연말과 같이 대량의 취업자 수 감소와 실업률 증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장기적으로 고용률과 취업자 수 증가추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희망근로나 건설업 중심의 단기적 일자리가 아닌 장기적으로 생산과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일자리를 바탕으로 내수시장을 개선시켜 외부적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며, 수출에만 의존하고 있는 제조업에 새로운 고용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계속되고 있는 심각한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청년층은 고용률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며, 취업자 수도 줄어들고 있다. 날로 악화되는 고용상황은 이들로 하여금 경제활동참가를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다.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를 감소는 결혼과 출산율의 저하를 동반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토대인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상대적으로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고용할당제를 공기업과 대기업에 확대하는 정책이나,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회보장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청년층에 대해 교육과 보건의료에 있어서의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문

1. 통계청의 2010년 9월 고용동향

10월 20일 발표된 통계청의 2010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0년 9월 고용률은 8월과 같은 59.1%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는 2,405만 4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4만 9천명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취업자 수의 증가는 명절요인 등으로 일용직이 감소하였으나, 제조업을 중심으로 공공행정의 외 부문에서 증가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25만 2천명), 보건및사회복지(17만 8천명), 사업시설관리및지원서비스(11만 4천명), 건설업(4만 9천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19만 6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9만 2천명), 농림어업(5만 8천명)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1.1%로 전년동월과 동일했고, 실업자는 85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2천명이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4%로 전년동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신청 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인해 실업자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층의 경우 실업률이 지난 8월과 마찬가지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15세~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7.2%로 지난 8월보다 0.2%p 증가했으나, 전년동월대비 0.4%p 줄어들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77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 9천명(1.3%p)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537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9천명(2.3%p) 증가하였고, 여자는 1,039만 4천명으로 8만명(0.8%p) 증가하였다.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가사(22만 9천명), 쉬었음(6만 8천명), 재학·수강 등(5만 4천명)에서 증가한 반면, 육아(16만명), 심신장애(1만 5천명)는 감소하였다. 그리고 구직단념자¹⁾는 21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6천명이 증가하였으며, 취업준비자²⁾는 62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2천명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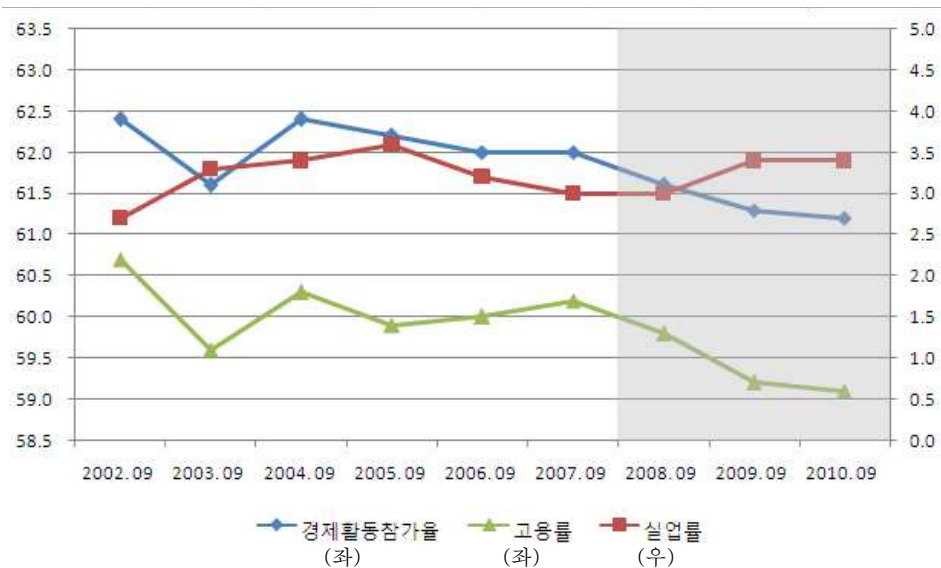
1) 구직단념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

2) 취업준비자 : 취업목적으로 학원·기관 수강 등과 기타 취업준비를 합한 것

2. 고용률 하락

상승세를 보이던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이 2010년 3월 이 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2010년 9월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한 59.1%로 나타났다. 고용률 포함 주요 고용지표를 살펴보면, 전년동월대비 실업률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하락하였다. 기간을 확대해 2002년부터 매년 9월의 고용지표들을 비교해 보면, 금융위기 이 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실업률을 제외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비교대상 연도 중 올해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이는 2010년 9월의 고용상황이 나빠졌음을 의미한다.

[그림 1]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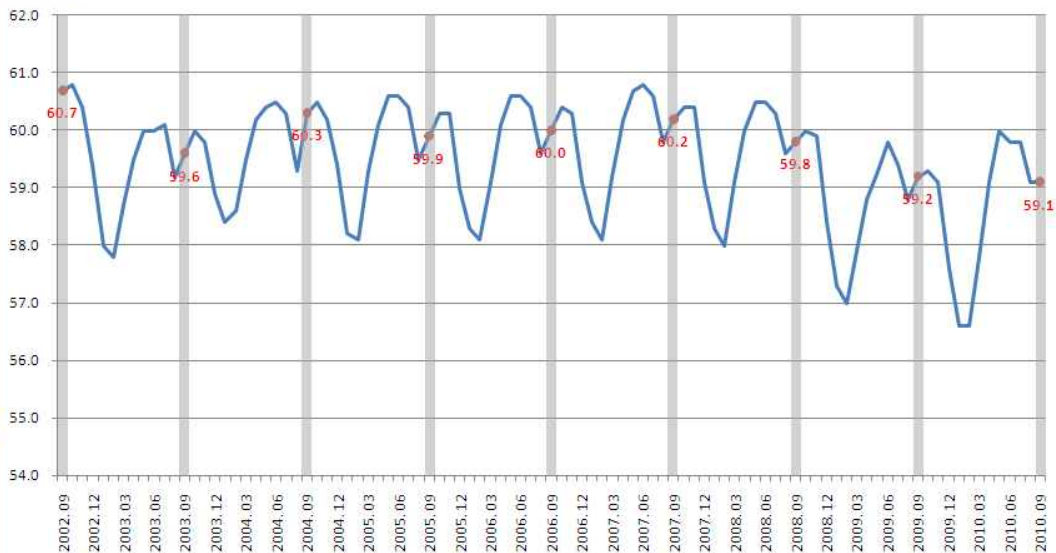
여기서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일자리를 가졌거나 가지려고 하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고,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 일자리를 가진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실업률의 변동없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저하된 것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3%, 19만 9천명이 증가했다.

실업률 증가를 고용상황의 악화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일을 하려고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의 비중이 증가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라의 경우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의 상당수가 실업자로 노동시장에 머무르기보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더 많다. 오랜 기간 취업이 안 된 여성이 취업을 포기 혹은 연기하고 가정에서 가사나 육아를 담당하거나, 취업이 안 된 대학졸업예정자가 졸업을 연기하고 취업을 위해 영어공부를 하거나 고시공부를 하는 경우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장기실업상태를 선택하기보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고, 이런 특성들로 인해 실업률을 통해 전반적인 고용상황을 평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연구자들이 많다.

그러므로 최근에는 전반적인 **고용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고용률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고용률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지표이다.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고려가 없는 실업률에 반해, 고용률은 비경제활동인구를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고용률을 통해 고용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고용전략2020에서도 고용률 상승을 고용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때 고용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의 비중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그림 2]는 이들의 비중이 2002년 이후 매년 9월 중 가장 크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고용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림 2] 월별 고용률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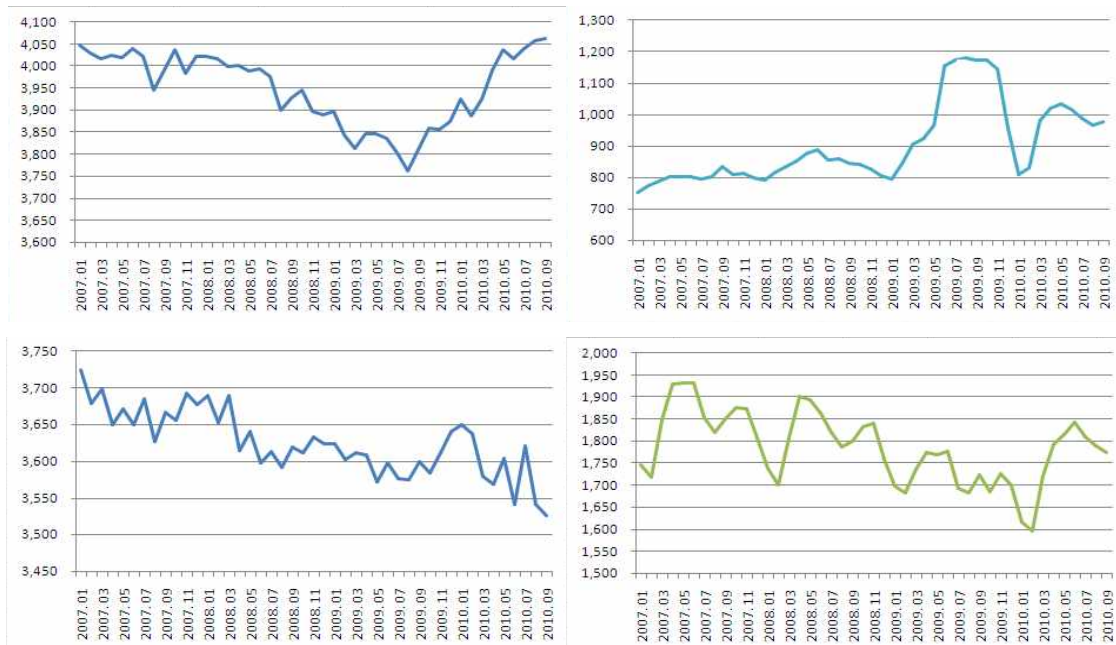
2010년 3월 이후 8월까지 취업자 수 증가와 함께 개선되는 것으로 보였던 고용률,

고용상황이 다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고용증가추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3월 이후 30만명 이상을 유지하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가 9월 들어 24만 9천명으로 줄어들었다. 취업자 수는 증가했지만, 증가세가 둔화함으로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수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했고, 이것이 고용률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2010년의 9월 고용률은 동년 8월 고용률과 동일하고,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림 2]의 월별 고용률 변동 추이를 보면 8월 고용률보다 9월 고용률이 높지 않는 것은 2010년이 유일하다.

3. 고용증가추세 둔화

2010년 3월 이후 30만명 이상을 유지해오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가 24만 9천명으로 줄어든 것과 관련해 정부는 명절효과와 잦은 비 등으로 인해 일용직 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현재 지속적으로 고용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다음 달에는 다시 취업자 수가 3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증가추세에 대한 낙관이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림 3] 제조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복지행정, 건설업, 도소매업 취업자 추이



※ 왼쪽 상단 그래프부터 시계방향으로 제조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복지행정, 건설업, 제조업 순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빠르게 취업자 수를 증가시키며 고용수준을 회복시켜왔다.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 3]에 따르면, 2010년 3월 이후 현재의 취업자 수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기저효과와 수출증가에 따른 제조업에서의 고용증가와 8월에 이어 9월에도 취업자 수 감소를 보인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복지행정에서의 정부 고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산업에서의 고용이 있었기 때문에 도소매업에서의 지속적인 취업자 수 감소와 2009년과 2010년 상반기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 속에서도 전체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도 이전과 같은 고용증가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까? 제조업의 고용증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수출호조는 전지구적 금융위기 속에서도 계속된 중국의 경제 성장과 원화가치 하락이라는 **환율에서의 긍정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들이 약화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월 20일 금리인상을 발표하며 경기조절에 나섰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중국 경기성장 속도의 상대적 둔화는 향후 우리나라의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선진국들 사이 환율전쟁 속에서 원화가치가 강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 역시 수출에 부정적인 요소이다. 경제위기 이전 달러대비 900원 초반이던 원화환율은 2009년 1,500원을 넘었으나 최근 1,100원 초반대로 떨어졌다. 원화가치가 앞으로도 상승한다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상실을 가져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제조업에서의 고용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수출호조와 함께 기저효과 역시 제조업의 고용증가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어 왔다. 통계청 역시 지난 8월 고용증가의 이유로 수출증가와 함께 기저효과를 들었다. 하지만 제조업의 경우 앞으로 예전과 같은 기저효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을 보면 최근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넘어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기저효과가 바닥난 제조업에서의 불확실한 수출전망**은 향후 지금과 같은 고용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까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제조업과 함께 현재의 고용수준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복지행정에서의 정부고용이다. [그림 1]을 보면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이들 산업에서의 고용을 급속히 증가시켜 고용률을 높여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산업에서의 정부 고용은 일시적이며, 임금이나 작업환경으로 볼 때 좋지 않은 일자리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계약기간에도 다른 일자리가 생길 경우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빈번했고, 계약기간이 종결되는 시점에서 급격히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2009년 말 희망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던 시기 취업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실업률은 5%까지 증가한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는 2010년 3월경 다시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복지행정에서의 고용을 증대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고용률은 상승해왔고, 취업자 수 증가 또한 매달 30만명 이상을 유지해온 것이다. 하지만 새롭게 생긴 이 산업에서의 일자리들 역시 일시적이며 좋지 않은 일자리인 경우가 많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복지행정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는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자리 특성에 변화가 없을 경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향후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기가 되면 작년 연말과 같은 취업자 수의 급격한 감소 또한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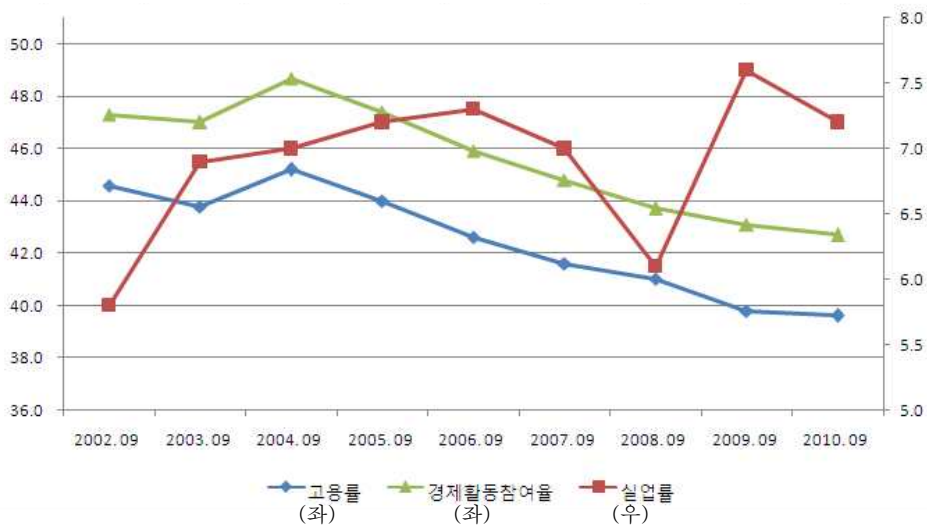
전년동월대비 24만 9천명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다. 느려졌기는 하지만 고용증가 추세는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바람대로 다음 달 30만명 이상의 취업자 수가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고용률 상승과 고용증가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취업자 수 증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제조업과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 과거와 같은 고용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오히려 고용감소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환율불안이 계속되어 수출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수출 감소가 현실화되면 제조업의 고용은 줄어들 수 있고,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 2009년 연말과 같이 대량의 인원이 동시에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전체 취업자의 수는 감소할 것이다.

4. 악화일로의 청년층 고용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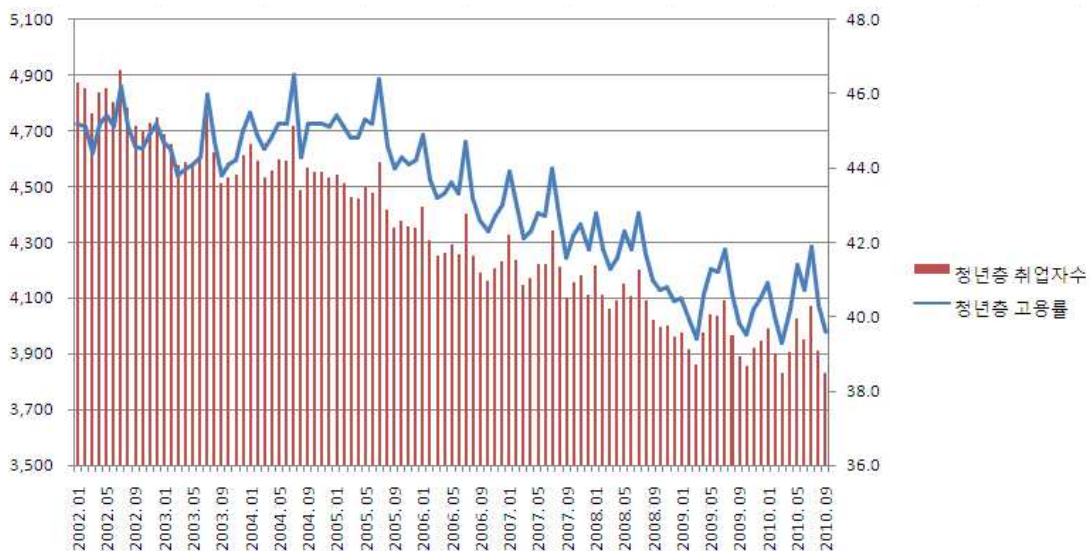
청년층의 고용상황은 8월에 이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세~29세의 청년층의 고용지표를 보면 실업률은 감소한 반면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그림 4] 참조), 이는 지난 8월과 마찬가지로 청년층의 고용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으며 오히려 나빠지고 있음을 상체에 있음을 나타낸다.

실업률의 경우 7.6%에서 7.2%로 0.4%p 감소해 고용상황이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실업률의 경우 일자리가 없어 취업준비만 하고 있는 취업재수생 및 준비생, 고시생 등과 취업을 포기한 니트(NEET)족³⁾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고용률과 경제활동참여율은 각각 0.2%p, 0.4%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년층에 해당하는 연령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 일을 하고 있는 취업자의 비중과 취업자에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4] 청년층 주요 고용지표 변동 추이



[그림 5] 청년층 취업자 수와 고용률 변동 추이 (단위 : 천명)



3) 니트족 :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

특히, 청년층의 경우 30대와 40대에 비해 고용상황이 더욱 좋지 않은데, 금융위기가 지나면서 중장년층의 경우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회복세를 보였지만, 청년층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부터 감소하던 고용률이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더욱 심각해졌고, 회복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5] 참조). 이와 함께 취업자 수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2010년 9월 15세~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383만 3천명이다. 이는 2002년 1월 이후 2010년 3월 383만 1천명과 함께 가장 적은 청년층 취업자 수이다.

청년층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과 같은 **청년고용할당제**를 공기업에서 뿐만 아니라 **100인 이상 대기업**에도 실시하도록 해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층에게 제공하는 정책이나, 전반적인 일자리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과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사회보장서비스 강화**를 통해 청년층으로 하여금 보다 쉽게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청년들은 일자리 자체는 줄어드는 가운데, 좋지 않은 일자리만 늘어나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이는 이들로 하여금 비경제활동을 택하도록 하고 있다.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청년층 경제활동참가를 하락은 그 자체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의미지만, 결혼과 출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성장의 토대가 되는 경제활동인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다른 연령대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5. 글을 마치며

통계청의 2010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년동월대비 고용율은 하락했고, 고용증가추세는 둔화되었다. 정부는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지만, 금융위기 이후 고용증가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제조업과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의 고용증가가 과거와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인 고용률 증가와 고용추세증대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희망근로나 건설업 중심의 단기적인 일자리가 아닌, 장기적으로 생산과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이들 일자리를 바탕으로 내수시장을 개선시켜 외부적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며, 수출에만 의지하고 있는 제조업에 새로운 고용성장동력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계속되고 있는 심각한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용률도 낮고, 취업자 수도 적은 청년층의 고용상황은 이들로 하여금 경제활동참가를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다.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감소는 결혼과 출산율의 저하를 동반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토대인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상대적으로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